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기능평가를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¹

-McManu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오강임^{2*} · 조 우³ · 이경재⁴

A Study on the Promoting Utilizing by Evaluation of the Visitor Center Functions in the National Parks, Korea¹ -Based on McManus' s Communication Theory-

Kang-Im Oh^{2*}, Woo Cho³, Kyeong-Jae Lee⁴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대표적 자연해설시설인 탐방안내소 중 계획에 의해 조성·운영중인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사지구 탐방안내소와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지구 탐방안내소를 대상으로 기능평가를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해 탐방안내소의 개념 및 기능, 유형 등을 파악하고 McManu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탐방객에 의한 이용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5단계에 걸친 평가 결과 탐방안내소 이용자들은 탐방안내소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관람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며 편의시설과 안내시스템의 부족으로 올바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시내용에 대한 관람성향과 전시 내용의 이해도 부문 역시 전시물과 탐방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탐방안내소 홍보 및 안내사인 보완 둘째,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전시관별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시연출 셋째, 각 전시내용들이 각 탐방객들의 사회적 경험과 연관되도록 하며 넷째, 전시주제에 맞는 전시매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연해설시설, 탐방객관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use of national park visitor centers, by evaluating their functionality. Visitor centers in Naejangsan National Park and

1 접수 3월 10일 Received on Mar. 10, 2004

2 인천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 Dept. of Environment and Ecology,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Incheon (406-130), Korea(sorae17@idi.re.kr)

3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 Wonju (220-702), Korea(woocho@sangji.ac.kr)

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Univ. of Seoul, Seoul (130-743), Korea(ecology@lacomi.uos.ac.kr)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Pukhansan National Park, which are deliberately composed and managed, were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First, I clarified the concept, function and type of a visitor center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n, analyzed visitors' post-visiting evaluation based on McManus's Communication Theo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visitors have not enough tim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visitor centers, and facilities and guide sign system to support visitors are insufficient, which seem to disturb the proper communication between visitors and exhibits. Visitors' short visiting time caused by their little interest in exhibits and their low degree of understanding show the difficulties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visitors and exhibi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the improvement of the guide sign system; second, the provision of exhibition rooms specialized for different visitor groups; third, the display of exhibits connected with visitors' experiences; Forth, the utilization of various media proper for each subject.

KEY WORDS : INTERPRETATION FACILITY, VISITOR MANAGEMENT

서론

탐방안내소(Visitor Center)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해당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지형, 지질, 역사, 인문사회, 풍속 등 공원자원을 이해토록 하고 탐방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시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탐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국립공원관리공단, 1998)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1994),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지구(1995)에 탐방안내소를 조성하였으나 이들 탐방안내소는 탐방안내소와 버스터미널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이 협소하고 전시내용도 탐방안내소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이주희, 1996). 1997년에는 최초로 계획적인 설계에 의해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사지구, 2001년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지구에 탐방안내소를 추가로 조성하였으나 탐방안내소 조성의 역사가 미비하여 기초 조사의 미흡, 계획의 전문성 부족, 자연해설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탐방안내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이경재, 2002).

탐방안내소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전시와 더불어 전문해설원에 의한 자연해설이 이루어지고 공원이용의 다양한 정보와 이용방법을 지도하는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가 자연보호의 계몽 및 보급활동이며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탐방안내소는 자연학습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민성환, 1998). 탐방안내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해설활동이 의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과 전시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박물관은 탐방안내소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전시실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적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전시실에서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전에 전시실을 먼저 탐방함으로써 국립공원을 간접체험하게 한 후 국립공원을 탐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박물관과 탐방안내소의 전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활동은 각 전시물과 탐방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설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탐방객들이 탐방안내소에 들어와 여러 환경해설 매체를 접하고 메시지를 수용, 이해하는 과정은 탐방객과 탐방안내소가 환경해설을 매개로 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운주, 2001).

McManus(1991)는 관람객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박물관에서 의도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까지 총 5단계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는데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밝혀내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단계는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방문유도 요인들을 분석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일단 박물관에 들어온 이용자들이 전시실을 관람하기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각 전시물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박물관 방문시 동반 그룹에 따라 전시물의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며, 4단계는 각 전시물의 메시지와 관람객과의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으로써 주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한다. 마지막 5단계는 관람객이 전시실 관람을 마친 후 전시실에서 의도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필기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별 경로' 방법은 관람객의 관람에서 이해까지의 '관람 흐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각각의 모델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석기(1998)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을 이용하는 다섯 가지 경로를 따라 경로별로 효과를 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 증대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관련된 연구는 짧은 조성역사로 인하여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Manu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기능강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계획에 의해 조성되어 탐방 안내소로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1997년 개장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사지구 탐방안내소와 2001년 개장한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지구 탐방안내소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Table 1은 McManu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각 단계에 따른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을 나타낸 것으로 이

용 후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크게 설문조사와 관찰조사, 필기테스트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항목은 1단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국립공원 및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로서 문항은 탐방객들의 성별, 연령, 동반형태, 학력, 거주지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4단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탐방객들이 전시공간을 탐방한 후 시각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순서대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전시물과 탐방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찰조사는 2단계 물리적, 동기유도와 3단계 사회 상황 경로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입실에서부터 퇴실까지의 동선, 각 전시물에 대한 관람유지력과 집객력, 동반탐방객과의 대화내용 등을 기입, 서술하였다. 관람유지력이란 탐방객이 전시물 앞에서 체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집객력은 전시물 앞에 정지하는 탐방객의 수를 의미한다. 관찰조사는 탐방객이 모르게 진행되었다.

필기테스트는 2단계 물리적, 동기유도와 5단계 메시지 형성 경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물리적, 동기 유도요소 중 전시물의 분포와 배치는 탐방객의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물리적인 동선개념과 탐방객의 동선개념이 일치하게 되면 전시물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게 해준다. 전시물의 배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방을 마친 탐방객들에게 특정 전시실의 평면 배치도를 제시하여 전시물에 대한 기억을 테스트하였다. 5단계 메시지 형성 경로 평가는 전시실에서 의도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전시물의 전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된 문제에 답하게 함으로써 탐방객의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필기테스트는 설문 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2002년 9월 14일~16일, 2003년 8월 12일~14일에 이루어졌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은 2002년 9월 28일~29일과 2003년 8월과 9월의 평일 6일간에 걸쳐

Table 1. Research methodology

Item(McManus' s survey steps)	Contents	Methods
Primary audience filter test	Visitor characteristics survey	Question investigation
Physical and motivational filter test	Tracking study, Motivational factor study	Tracking study / writing test
Social context filter test	Visitor' s behaviour study	Tracking study
Perceptual filter test	Visual communication survey	Question investigation
Message form filter test	Writing test on 10 questions	Writing test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로서 충분한 설문부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두 해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주중 탐방객과 주말 탐방객을 모두 포함하였다. 설문지는 내장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각각 157부, 16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연구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각 공원별 155부, 156부를 대상으로 spss win 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공간 이용에 대한 관찰 조사는 조사기간 내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내장산국립공원 148그룹, 북한산국립공원 142그룹을 관찰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1단계(일차관람 유도평가)

1)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국립공원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남성 56.1%, 여성 43.9%로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 범위는 20대 이하 35.5%, 30대 32.9%, 40대 22.9%, 50대이상 9.1%로 주로

Table 2. Demography of respondents

Item	Categories	Naejang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Gender	Male	56.1	57.1
	Female	43.9	42.9
Age	Below 20	35.5	16.0
	21~30	32.9	37.2
	31~40	22.9	32.1
	Over 50	9.1	14.7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6.4	3.2
	High school	30.3	31.4
	Over university	63.3	65.4
Occupation	Plant workers · service · independent business	16.8	25.6
	Public service worker · teacher	14.2	10.3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y	2.6	-
	Technical jobs	0.6	1.9
	Salary	23.9	27.6
	Students	16.8	4.5
	Housewives	16.8	20.5
	Etc.	8.4	9.6
Residential area	Seoul	20.6	94.2
	Busan	1.9	-
	Daejeon	0.6	-
	Daegu	5.2	-
	Incheon	3.9	-
	Gwangju	11.0	-
	Ulsan	0.6	-
	Gyeonggido	12.9	5.8
	Gangwondo	0.6	-
	Chungbuk	1.9	-
	Chungman	2.6	-
	Gyeongbuk	2.6	-
	Gyeongnam	0.6	-
	Jeonbuk	31.0	-
Jeonnam	3.9	-	

젊은 계층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탐방객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의 63.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30.3%로서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대부분이 고학력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분포로는 회사원 23.9%, 상·공·서비스·자영업, 학생, 주부가 각각 16.8%의 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광주를 비롯한 전라북도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6%, 경기도 12.9% 순으로 나타나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타 다른 지역주민들의 탐방도 이루어져 전국적인 탐방행태를 보였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남성 57.1%, 여성 42.9%로 남성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30대가 37.2%, 40대가 32.1%로 나타나 주로 청장년계층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탐방객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65.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31.4%였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27.6%, 상·공·서비스·자영업이 25.6%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자의 직업구성비와 비슷한 편차를 보였다. 거주지는 서울이 94.2%, 경기도가 2.8%로 서울지역 거주민의 이용이 절대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산국립공원이 도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판단되었다.

2)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의 공원이용 행태

내장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동반유형 (Table 3)은 주로 가족동반(48.4%)과 친구·연인의 동반(40.4%)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내장산국립공원을 찾아온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친목도모(27.7%), 산책/산림욕 등을 통한 건강증진(23.9%), 일상생활에 변화(19.4%)의 순이었고, 접근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83.9%)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의 체제시간은 전체 응답자 중에 49.0%가 2시간 이내로 나타나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박 2일 동안 체류하는 탐방객은 13.5%로 나타났다. 공원 방문횟수는 1년에 1회 방문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재방문 이상의 방문경험이 있었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의 동반유형은 주로 가족(60.3%) 또는 친구·연인(19.9%)이 주를 이루었고

Table 3. Respondents' visiting behavior of the National Parks

Item	Categories	Naeja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Type of companion	Single	5.8	17.9
	Family	48.4	60.3
	Friends · lover	40.0	19.9
	Group	5.8	1.9
Visiting purpose	Stress solution	3.9	16.0
	Change of daily life	19.4	10.0
	The healthy increase which leads a walk and the forest abusive language back	23.9	38.0
	Friendship planning of family, friend and colleague	27.7	16.0
	View, culture property appreciation	12.3	2.0
	Nature and studying regarding a culture	10.3	14.0
	Etc.	2.6	4.0
Transportation	Working	0.6	9.0
	Car	83.9	29.5
	Bus	11.0	61.5
	Tourism bus	4.5	-
Visiting period	Below 2hours	49.0	52.0
	2~4hours	-	26.0
	4~6hours	34.8	16.0
	6~8hours	-	6.0
	12hours	2.5	-
	1~2days	13.5	-

단체관광의 비율(1.9%)은 낮았으며 혼자(17.9%) 탐방하는 형태는 타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산책/산림욕 등을 통한 건강증진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스트레스 해소(16.0%), 가족, 친구, 동료와의 친목도모(16.0%),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학습(14.0%)의 순이었다. 이용 교통수단은 시내버스(61.5%)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가용(29.5%)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북한산국립공원이 도시근교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 및 제한된 주차공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문횟수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과거 방문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의 방문 빈도를 보면 2~5회 방문이 26.0%, 11~20회 방문이 20.0%, 21회 이상도 32%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과 달리 도시근교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의 독특한 방문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3)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방문경험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를 사전에 알고 탐방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3.5%였으며, 과반수가 넘는 대부분의 탐방객은 사전에 탐방안내소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탐방안내소를 알게 된 인지경로로는 공원에 와서 '탐방안내소를 보거나'(42.3%), '공원안내판을 통해'(21.2%)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그 외 '인터넷을 통해'(13.5%), '주변 친구나 동료를 통해'(11.5%), '언론의 소개를 통해'(7.7%) 등의 순이었다. 탐방객의 71.7%가 탐방안내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으며, 16.7%의 탐방객은 4번 이상 재 방문하였다. 방문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0.3%가 '공원의 이용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고 했으며, '전시물 관람'이 25.2%, '편의 및 휴게 시설 이용'이 19.4%, 특별한 목적이 없거나 동료나 가족을 따라서 방문한 경우가 25.2%였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1.7%가 사전에 탐방안내소를 알고 있었으며 58.3%는 모르고 있었다. 탐방안내소를 알게 된 경로는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안내소를 보고'가 27.7%, '공원안내판을 통해'서가 18.5%였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공원관리인을 통해'(7.7%), '인터넷을 통해'(6.2%), '언론의 소개를 통해'(4.6%)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8.3%가 탐방안내소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으며 21.8%의 응답자는 4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탐방안내소의 방문목적은 묻는 질문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거나 친구나 가족을 따라 오게 된 탐방객이 50.6%로 과반수 이상의 탐방객이 이에 속했다. 그 외 전시물을 관람(28.8%)하기 위해서나 공원이용정보를 얻기(12.8%) 위해서 탐방 안내소를 탐방하였으며 편의 및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7.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탐방

Table 4. Respondents' visiting behavior of the visitor centers

Item	Categories	Naeja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Knowledge	Yes	33.5	41.7
	No	66.5	58.3
Channel of knowledge	By the friend or the colleague	11.5	35.4
	By the introduction of press	7.7	4.6
	By the internet	13.5	6.2
	By park guide plate	21.2	18.5
	By the park administrator	3.8	7.7
	By the information bureau	42.3	27.7
Visiting times	First	71.7	58.3
	Second	7.7	10.3
	Third	3.9	9.6
	Over forth	16.7	21.8
Visiting purpose	For gathering Nationalpark information	30.3	12.8
	For visiting exhibitions	25.2	28.8
	For resting and using facilities	19.4	7.7
	For social event with family or friends	6.5	12.8
	With no specific reason	18.7	37.8

객들의 방문목적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7.8%가 '특별한 목적없이' 방문하였으며, '전시물 관람' (28.8%), '공원이용정보 얻음' (12.8%), '동료나 가족을 따라서' (12.8%) 등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1단계 분석결과 내장산국립공원 33.5%, 북한산국립공원은 41.7%가 탐방안내소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탐방안내소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탐방안내소를 홍보하고, 공원 내 탐방안내소를 알리기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탐방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매표소에 도달하기 전에 탐방안내소가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상가건물들이 많아 별도의 안내사인파 홍보를 통해 탐방안내소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 요구된다.

인지경로 조사결과 내장산국립공원은 공원을 방문한 후 탐방안내소를 보거나, 안내판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은 입소문에 의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강화는 필수적인 방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 사이트를 통해 탐방안내소를 홍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잠재탐방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용 휴대전화, 방송 및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2단계(물리적, 동기 유도평가)

1) 공간 이용에 대한 탐방객 추적 조사

탐방객 추적조사는 각 탐방안내소에서 제공하는 환경해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탐방객의 관람동선, 관람시간, 특정 전시물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특정 전시실의 배치 인지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Table 5는 탐방객의 동선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동선의 형태는 탐방객의 관람성향에 따라 통과형과 관람형으로 나누고 탐방객이 이용한 출입구가 정문 또는 후문인가에 따라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편의·휴게시설만 이용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안내소에서 유도하는 동선인 정문 → 전시실 → 후문의 동선을 따른 사람은 전체 탐방객의 48.0%였다. 이는 휴게실에서 출구쪽으로 유도되는 주동선과 관리용 동선으로써 입구 쪽으로 나오는 부동선이 있는데 출구와 혼동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4개로 구분되는 전시실은 탐방안내소에서 유도한 동선대로 탐방하였으며 일부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자녀의 요구에 의해 관람함으로써 일정한 동선을 갖지 않았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respondents' paths in the visitor centers

Case of traffic line	Naejang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P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Entrance → Visiting → Exit	48.0	61.3
Entrance → Passing → Exit	8.8	8.5
Entrance → Visiting → Entrance	23.6	21.1
Entrance → Passing → Entrance	6.1	4.9
Exit → Visiting → Exit	11.5	0.0
Exit → Passing → Exit	1.4	0.0
Exit → Visiting → Entrance	0.0	3.5
Exit → Passing → Entrance	0.7	0.7

북한산국립공원은 입출구의 경우는 전체 탐방객의 61.3%가 탐방안내소에서 유도하는 동선을 따르고 있었으나 탐방안내소 내부에서 2층으로의 동선은 거의 없었다. 전시실 관람을 주목적으로 하고 않고 편의·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탐방안내소를 찾는 탐방객들은 동선유도와 관계없이 목적만을 달성하고 퇴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 조성 당시에는 탐방안내소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전시실을 관람하는 탐방객들의 탐방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어 내부에서의 편의시설 접근동선을 차단하고 있었다(Table 5).

2) 전시물에 대한 집객력과 관람유지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교육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공간은 전시실로서 각 전시내용과 흐름, 이를 전달하는 전시매체에 따라 이를 관람하는 탐방객들에게 교육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최석기, 1998).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가장 집객력이 높은 전시는 '내장산모형'으로 전체 148개 탐방그룹 중 130개 그룹이 관람하였고 다음으로 '초가집모형'(110그룹)이었다. 모형과 같이 시·지각적으로 흥미 있는 전시매체는(Table 6) 탐방객의 시선을 끌기 쉽기 때문에 집객력이 높은 반면 해설패널과 같은 전시매체는 집객력이 낮게 나타났다. 해설패널 중에서도 '국립공원보호계획'은 디오라마 맞은편에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시연출적인 면에서 호감성이 떨어져 집객력이 가장 낮았으며 '내장산의 기후와 지질'은 내장산의 모형도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탐방객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전시매체별 관람유지력이 가장 높은 것이 디오라마, 모형과 같은 3차원 입체물로서 '내장산모형도'

Table 6. Attracting power and holding power of respondents in the Naejo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Item	Categories	Attracting power(groups)	Holding power(seconds)
Panels (including pictures, graphics, sentences)	Tunnel lined by trees featuring autumn foliage	38	15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parks	36	25
	Nature preservation plan	18	19
	Weather and terrain of Naejongsan	12	9
	Culture of Jeongeup	21	22
	Picture of animal and plant	25	33
	Plant studying data	36	16
Average		27	19.9
Specimen	A fossil	25	12
	Insect specimen	59	40
	A cranial bone of animal	74	9
	Display of folklore artifacts	81	19
	The principal products of Jeongeup	48	10
Average		57	18.0
Model (Diorama, Etc.)	Miniature of Naejongsan	130	131
	Diorama of ecosystems	85	83
	Model of straw-thatched house	110	70
Average		110	94.7
Hardware (Sounds, photoplay, Etc.)	Watching video	47	66
	Information search	97	70
	Average	72	68.0

(131초), '생태계 디오라마' (83초), '정보검색' (70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물의 두개골' (9초), '국립공원개요' (25초), '정읍의 문화' (22초) 등과 같은 해설패널은 단순 내용을 나열하거나 사진만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전시연출적인 면에서 호감도가 낮아 집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6).

Table 7은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전시매체별 집객력·관람유지력을 나타낸 것이다. 전시매체별로 집객력은 영상, 음향 하드웨어를 이용한 전시물에서 집객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모형 → 표본전시 → 해설패널 순이었다. 이것은 내장산국립공원의 분석결과와 다른 것으로 '북한산의 포유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형 스케일이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산의 모형도', '생태계 디오라마', '초가집 모형' 보다 작아 탐방객의 집중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영상, 음향 하드웨어를 이용한 전시물인 'TV로 보는 북한산의 조류', '친구들의 먹이사슬', '소리를 들어봐요', '정보검색'이 단순 영상과 음향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탐방객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시물로 집객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 표본전시, 해설패널을 이용한 전시물은 상대적으로 다른 전시매체에 비해 집객력이 떨어졌으나 해설패널 중 '북한산 전체지도'는 2002년 조사시에는 없었으나 2003년에 전시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2003년 조사시 80그룹 중 64그룹이 전시물을 관람함으로써 높은 집객력을 보였다.

전시매체별 관람유지력을 분석한 결과, 집객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영상, 음향 하드웨어를 이용한 전시물에서 가장 오랜시간 관람을 하였으며 모형 → 표본전시 → 해설패널의 순이었다. 영상, 음향 하드웨어를 이용한 전시물들이 모두 조작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물로 일차적으로 탐방객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TV로 보는 북한산의 조류' 코너는 화면을 통해 새의 종류를 확인하는 동시에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어봐요'는 헤드폰을 쓰고 조작을 통해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등 오감을 통해 관람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오래 체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Table 7. Attracting power and holding power of respondents in the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Item	Categories	Attracting power(groups)	holding power(seconds)
Panels (including pictures, graphics, sentences)	Overview guide plate	11	11
	Nationalpark present condition	18	32
	Geological of pukhansan	14	21
	Beautiful pukhansan	11	29
	Pukhansan whole map	64	65
	Wild flower of pukhansan	22	31
	Pukhansan foreground	7	13
	Nest of friends 1	17	7
	Nest of friends 2	19	5
	Fossil of pukhansan	34	16
	Our friends with pain and anguish	13	18
Average		21	22.5
Specimen	Insects of pukhansan	43	39
	A cage for Insects	31	20
	Average	37	29.5
Model(Diorama, Etc.)	Mammalia of pukhansan	70	47
	An unstintedly devoted tree	55	33
	Average	63	40.0
Hardware(Sounds, photoplay, Etc.)	Information search	76	121
	Birds of pukhansan viewed on TV	101	70
	Tries to listen to a sound	84	114
	Food chain of friends	96	81
	Average	89	96.5

3) 전시물 배치 인지도 조사

전시물의 분포와 배치는 탐방객의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물리적인 동선개념과 탐방객이 개념동선이 일치하게 되면 전시물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게 해준다(최석기, 1998).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제3전시실 관람동선인 디오라마(식물) → 곤충표본 → 디오라마(천연기념물) → 자연보존계획의 배치순서를 기억하고 있는지 필기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전시프로그램의 개념동선과 전시물 배치에 대한 탐방객들의 인지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155명 중 70명(45.2%)이 배치순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85명(54.8%)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2002년 조사에서는 제2전시실의 관람동선인 식물 → 곤충 → 포유류 → 야생조류의 배치순서를 질문하였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북한산의 전체지도가 곤충표본이 전시된 위치의 벽면에 추가 설치되었으므로 질문내용을 수정하여 식물 → 전체지도 → 포유류 → 야생조류의

배치순서를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156명 중 89명(57.1%)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67명(42.9%)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연구대상지를 방문한 탐방객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조사시기, 경험유무, 동반유형)별 전시물 배치 인지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내장산국립공원의 경우 연령과 동반유형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연령, 동반유형)되었다. 연령별로는 30~49세의 장년층의 인지정도가 가장 높았고 동반유형별로는 가족과 같이 탐방한 경우 정답률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단계(물리적, 동기유도평가) 분석결과를 볼 때 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공간이용에 대한 탐방객 추적조사 결과 내장산국립공원 52%, 북한산국립공원 38.7%가 입·출구에 혼선이 있거나 내부에 들어

와서 관람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선의 명확한 표시와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전시개요 및 전시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순서에 의해 관람할 수 있는 안내사인물 및 팸플렛 등의 배치 및 개선이 필요하겠다. 특히 안내데스크는 탐방객이 탐방안내소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므로 관리인이 상주하여 전시실 관람을 유도하는 등의 탐방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

며 리얼타임으로 공원이용 및 탐방안내소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전시물에 대한 집객력 및 관람유지력을 높임으로써 전시실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집객력이 있는 전시 주제는 관람연령층과 관람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탐방객의

Table 8. Results of the crosstabs on the individual cognition of exhibits

Site	Item / Categories	Knowledge	Unknowledge	Sum	
Naejang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Gender $\chi^2=0.309$, df=1	Male	41(26.5)	46(29.7)	87(56.1)
		Female	29(18.7)	39(25.2)	68(43.9)
	Age* $\chi^2=12.095$, df=2	Below 29	32(20.6)	23(14.8)	55(35.5)
		30~49	37(23.9)	49(31.6)	86(55.5)
		Over 50	1(0.6)	13(54.8)	14(9.2)
	Education $\chi^2=6.005$, df=2	Below middle school	1(0.6)	9(5.8)	10(6.5)
		High school	21(13.5)	28(18.1)	49(31.6)
		Over university	48(31.0)	48(31.0)	96(61.9)
	Residential area $\chi^2=2.202$, df=1	Jeonbuk	17(11.0)	30(19.4)	47(30.3)
		Etc.	53(34.2)	55(35.5)	108(69.7)
	Survey period $\chi^2=2.229$, df=1	Weekdays	45(29.0)	64(41.3)	109(70.3)
		Weekend	25(16.1)	21(13.5)	46(29.7)
Visiting experience $\chi^2=1.445$, df=1	Yes	27(17.4)	25(16.1)	52(33.5)	
	No	43(27.7)	60(38.7)	103(66.5)	
Type of companion* $\chi^2=8.068$, df=3	Single	4(2.6)	5(3.2)	9(5.8)	
	Family	35(22.6)	40(25.8)	75(48.4)	
	Friends · lover	31(20.0)	31(20.0)	62(40.0)	
	Group	0(0.0)	9(5.8)	9(5.8)	
P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Gender $\chi^2=1.110$, df=1	Male	54(34.6)	35(22.4)	89(57.1)
		Female	35(22.4)	32(20.5)	67(42.9)
	Age $\chi^2=0.906$, df=2	Below 29	15(9.6)	10(6.4)	25(16.0)
		30~49	63(40.4)	45(28.8)	108(69.2)
		Over 50	11(7.1)	12(7.7)	23(14.7)
	Education $\chi^2=1.132$, df=2	Below middle school	4(2.6)	1(0.6)	5(3.2)
		High school	28(17.9)	21(13.5)	49(31.4)
		Over university	57(36.5)	45(28.8)	102(65.4)
	Survey period $\chi^2=0.033$, df=1	Weekdays	61(39.1)	45(28.8)	106(67.9)
		Weekend	28(17.9)	22(14.1)	50(32.1)
	Visiting experience $\chi^2=0.467$, df=1	Yes	35(22.4)	30(19.2)	65(41.7)
		No	54(34.6)	37(23.7)	91(58.3)
Type of companion $\chi^2=5.109$, df=3	Single	13(8.3)	15(9.6)	28(17.9)	
	Family	52(33.3)	42(26.9)	94(60.3)	
	Friends · lover	21(13.5)	10(6.4)	31(19.9)	
	Group	3(1.9)	0(0.0)	3(1.9)	

* $p < 0.05$

인구학적 조사를 통해 시기별 주요 탐방객을 설정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초가집모형'은 집객력은 높으나 관람유지력이 낮은 경우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유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소리를 들어봐요'와 같이 관람유지력은 높으나 집객력이 낮은 전시물은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방이 끝난 후 전시배치에 대한 인지도 실기 테스트 결과 내장산국립공원은 전체 응답자의 54.8%, 북한산국립공원은 42.9%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표현방법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시각적 메시지 전달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주제별로 전시공간의 조명, 바닥패턴, 소개패널 등으로 전시물 간의 내용 차별화를 통해 다양성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3. 3단계(사회상황경로평가)

Table 9는 동반유형별 평균 체재시간을 분석한 것으로 내장산국립공원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관람시간은 평균 30분으로 이는 단체관광객이 탐방안내소를 방문했을 때 영상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영상물 관람시간 약 20분 정도가 추가된 것이다. 단체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지 모두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체재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혼성그룹 → 동성그룹 → 혼자 순이었고, 북한산국립공원은 동성그룹 → 혼자 → 혼성그룹 순이었다.

3단계 분석결과 각 전시내용들이 탐방객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관련되도록 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가족들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는 방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Table 9).

4. 4단계(지각경로평가)

4단계는 전시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떤 전시물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장산국립공원은 전체 응답자 155명 중 100명이 응답한 '내장산의 모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초가집모형'으로 99명이 응답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전시연출 방법이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조사한 전시물의 집객력과 관람유지력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 밖에 '내장산의 생태계디오라마'(94명), '단풍터널길'(80명), '민속생활품전시'(77명), '내장산의 정보검색'(70명)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에 해설패널로 연출된 '내장산의 자연보존계획'(53명), '국립공원의 현황'(37명), '내장산의 지질'(15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각적 인지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북한산국립공원은 내장산국립공원에 비해 전시실의 공간은 좁으나 전시물의 개수가 더 많으며 체험위주의 전시매체를 사용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산 전체지도'(56명), '맞춰보세요'(56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소리를 들어봐요'(53명), '북한산의 친구들 만져보기'(52명), 'TV로 보는 북한산의 조류'(47명), '친구들의 먹이사슬'(46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전시물은 모두 조작을 하는 것으로 한번 조작한 것이 시각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1).

4단계 분석결과 전시물 주제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전시물의 공간 점유 규모나 배치방법, 매체의 선택 등은 탐방객들이 전시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탐방객의 경험과 연계하여 인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전시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시주제에 맞는 전시매체의 활용과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전시주제의 면적확보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경우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형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간과

Table 9. Classification of respondents' visiting periods by companion types (Unit: minute)

Type of companion	Naeja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Average	Minimum~Maximum	Average	Minimum~Maximum
Sons and daughters accompaniment family	10.2	2~37	13.0	3~44
Combined group	9.3	3~28	4.1	2~15
Homosexual group	7.8	3~16	6.4	2~17
Group tourist	30.0	18~38	-	-
One person	5.7	2~13	4.7	1~16

Table 10. Results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urvey on exhibits of the Naeja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Item	Frequency(persons)	Medium
Miniature of Naejangsan	100	Model
Model of straw-thatched house	99	Model
Diorama of ecosystems	94	Diorama
Tunnel lined by trees featuring autumn foliage	80	Pictures
The principal products of Jeongeup	77	Specimen
Information search	70	PC
Nature preservation plan	53	Panel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parks	37	Graphic panel
Weather and terrain of Naejangsan	25	Panel
Geology of Naejangsan	15	Panel

Table 11. Results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urvey on exhibits of the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Item	Frequency(persons)	Medium
Pukhansan whole map	56	Graphic panel
Try to fix	56	puzzle
Tries to listen to a sound	53	Jokebox
Mammalia of pukhansan	52	Specimen
Birds of pukhansan viewed on TV	47	PC
Food chain of friends	46	Interactive medium
Try to take my footprint	36	Stamp
Beautiful pukhansan	32	Panel
Who am I	25	Graphic panel
Wild flower of pukhansan	14	Graphic panel
Peak of pukhansan	11	Pictures
Pukhansan information search	10	PC
A cage for Insects	9	Specimen
Fossil of pukhansan	7	Specimen
An unstintedly devoted tree	7	Semi-diorama
Nationalpark present condition	6	Graphic panel
Our friends with pain and anguish	5	Graphic panel
Nest of friends	1	Graphic panel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내용적인 면을 다소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5. 5단계(메시지형성경로평가)

커뮤니케이션 경로평가 중 마지막단계로 전시물 내용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전체 10문항 중 내장산국립공원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5문항(5.52)였

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은 6문항(6.36)으로 전시물 내용 인지도가 낮았다.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성별, 거주지, 경험유무와 탐방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시기에 따른 전시물 내용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성별, 거주지, 경험유무, 조사시기 모두 전시물 내용 인지도 차이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경우 탐방객의 90% 이상이 서울지역에 거

Table 12. Results of the T-test on individual cognition of exhibits

Site	Factor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t level)	
Naejang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Gender	Male	5.61	1.34	0.888(0.376)
		Female	5.40	1.63	
	Residential area	Jeonbuk	5.36	1.58	-0.860(0.391)
		Etc.	5.58	1.43	
	Experience presence	Yes	5.71	1.17	1.174(0.242)
		No	5.42	1.07	
Investigation time	Weekdays	5.52	1.53	0.088(0.930)	
	Weekend	5.50	1.36		
P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Gender	Male	6.31	1.37	-0.485(0.629)
		Female	6.42	1.25	
	Experience presence	Weekdays	6.46	0.96	1.434(0.154)
		Weekend	6.14	1.85	
	Investigation time	Yes	6.31	1.21	-0.411(0.682)
		No	6.40	1.39	

주하기 때문에 거주지 항목을 제외하고 그 외 성별, 경험유무, 평일과 주말에 따른 전시물 내용 인지도 차이 분석결과 모든 조사항목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3은 개인적인 특성인 연령 및 학력과 동반 유형에 따른 전시물 내용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

Table 13. Results of the dispersion analysis on individual cognition of exhibits

Site	Factors	Average	F(significant level)	
Naejang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Age	Below 29	5.64	0.313(0.732)
		30~49	5.47	
		Over 50	5.3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60	2.357(0.098)
		High school	5.14	
		Over university	5.70	
Type of companion	Single	5.56	0.496(0.686)	
	Family	5.61		
	Friends · lover	5.47		
	Group	5.00		
Pukhansan Nationalpark visitor center	Age	Below 29	6.24	1.593(0.207)
		30~49	6.47	
		Over 50	5.9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6.80	0.866(0.423)
		High school	6.51	
		Over university	6.26	
Type of companion	Single	6.68	1.390(0.248)	
	Family	6.37		
	Friends · lover	6.00		
	Group	6.67		

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지 모두 분석항목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 개인의 특성 및 경험에 따른 서로 다른 환경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탐방안내소를 방문한 탐방객들이 전시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인지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탐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전시공간 계획시 각 전시내용과 전시의 연출방법이 탐방객들이 이러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단계 분석결과 전시물에 대한 각종 설명과 해설에 대한 패널 및 시·지각적인 전시매체를 이용하여 탐방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담거나 전문적일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때 탐방객의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Miles, 1982) 해설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면서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단어 선택 및 시지각적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해설패널의 구성을 통해 탐방객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해설패널로서 표현이 어려운 것들은 다감각적 접근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탐방객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자연학습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는 탐방객들 또한 이용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McManus의 이용경로별 커뮤니케이션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이용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면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이용 후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전시실과 비슷한 박물관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박물관과 탐방안내소 전시실의 규모 및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McManus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자체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족하여 합리적이지 못하게 적용한 부분도 있었다.

향후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1998) 국립공원 30년사, 899쪽.
 민성환(1998) 자연관찰센터 및 자연관찰로 조성계획-경기도 수리산 군포시험림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2쪽.
 이경재(2002) 21세기에 걸맞는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조성·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계간지 제 29호, 10~13쪽.
 이주희(1996) 국립공원의 환경해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방문객센터 계획과 규모. 국립공원 관리공단 계간지 제7호, 103~109쪽.
 조운주(2001)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의 개선방안 - 탐방객의 이용행태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의 적용-.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3쪽.
 최석기(1998)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2쪽.
 Miles, R. S.(1982) *The Design of Educational Exhibitions*, Unwin Hyman, London, 102pp.
 McManus, P. M.(1991) 'Marking sense of exhibits', in Kavanagh, G. (ed.) *Museum Languages: Objects and Texts*, Leicester University Press, London and New York, pp. 33-45.